서울·영남 그늘 가려 뿌리 못내려

호남인맥 대해부

강봉균씨 강현욱씨 진 념씨 전윤철씨 한갑수씨 한덕수씨

〈4〉 재정경제부

5共~문민정부까지는 장관 한명도 배출 못해
차관 자리도 영남서 독식…현 고위급선 안밀려

대한민국의 경제정책과 금융, 세제 부분을 총괄하는 재정경제부는 정부 부처 가운데 핵심으로 꼽힌다. 부총리 직위인 재정경제부 장관은 정부 부처 서열에서도 국무총리 다음으로 가장 높다.

지난 94년 김영삼 정부에서 구 재무부와 구 경제기획원이 재정경제원으로 통합됐으나 외환위기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했다는 비판 속에 98년 재정경제부로 이름이 바뀌면서 전체적인 기능도 상당 부분 축소됐다. 공정거래실은 공정거래위원회로 독립됐고 예산실은 기획예산처로, 금융정책감독 기능은 금융감독위원회로 분리됐다.

그러나 '한강의 기적'을 만들었다는 자부심과 나라의 경제정책을 주름잡는 파워엘리트 집단이라는 자긍심은 그 어느 부처보다 강하다.

이를 반영하듯 재경직 행정고시 합격자 가운데 상위 성적자 대부분이 희망 배정 부처로 재경부를 택하는 등 경제 관료를 꿈꾸는 사람들에게 재경부는 여전히 최고의 부처다.

특히, 재경부는 타 부처에 비해 영·호남 차별 현상은 그리 크지 않았지만 배타적 문화가 강한 부처 특성상 호남 인맥이 뿌리 내리기 힘들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일단 제5공화국부터 문민정부까지 재무부의 뿌리인 재무부 장관, 경제기획원 장관 등은 경기고 출신으로 대표되는 서울 인맥과 영남 인맥이 상당한 강세를 보였다는 것이 일반적인 평가다.

제5공화국부터 문민정부까지 12명의 경제기획원 장관 가운데 영남 출신이 4명(김준성, 서석준, 김만제, 이경식), 서울 및 인천 출신이 4명(신병현, 나웅배, 이승윤, 정재석)으로 균형을 이뤘으며 강원 2명(조순, 최각규), 충청 1명(홍재형), 이북 1명(정인용) 등으로 나타났다.

또한, 11명의 재무부 장관 가운데 영남 출신은 5명(강경식, 김만제, 사공일, 정영의, 박재윤)을 차지했으며 서울 및 인천 출신은 2명(이승윤, 나웅배), 충청 출신 2명(이규성, 홍재형), 강원 1명(이용만), 이북 1명(정인용) 등으로 집계됐다.

문민정부 중반, 재무부와 경제기획원이 합쳐져 만들어진 재정경제원 장관 5명 가운데서도 서울 출신이 2명(나웅배, 임창열), 영남 1명(강경식), 강원 1명(한승수), 충청 1명(홍재형)으로 나타났다.

이에 반해, 호남 출신은 재정경제부의 뿌리인 재무부, 경제기획원, 재정경제원 장관 28명 가운데 단 1명도 없었다.

영남정권 아래서 호남 인맥은 영남 및 서울 인맥의 그늘에 가려 철저히 소외된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호남 인맥 가운데서도 전북 출신은 그런대로 명맥을 유지한 반면, 광주·전남 출신은 찾아보기 힘들었다.

이를 반영하듯 같은 기간 재무부, 경제기획원, 재정경제원 차관 29명 가운데 영남 인맥은 11명에 이른 반면, 호남 출신은 4명(강현욱, 한갑수, 강봉균, 진념)에 불과했으며 광주·전남 출신은 한갑수씨가 유일했다.

영남 정권에서 철저히 소외받았던 호남 인맥은 국민의 정부 들어서 꽃을 피웠다. 5명의 국민의 정부 재정경제부 장관 가운데 호남 출신은 3명(강봉균, 진념, 전윤철)으로 집계됐다. 또한, 충남 출신의 이규성씨와 중국 출신의 이헌재씨도 각각 재경부 수장으로 기용됐다. 이에 반해 6명의 차관 가운데서는 서울·경기 출신이 4명, 영남 출신 2명으로 집계됐다.

4명의 참여정부 재정경제부 장관 가운에서는 호남 1명(한덕수), 경기 1명(김진표), 중국 1명(이헌재)으로 집계됐으며 현재는 강원 출신의 권오규 장관 체제다.

그러나 참여정부에서의 재정경제부 차관 자리는 영남 인맥이 독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동안 6명의 차관이 기용된 가운데 영남 출신은 5명에 이른 반면 호남 출신은 1명(진동수)에 불과한 실정이다.

한편 재정경제부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현재 30명의 재경부 고위 공무원단 가운데 호남 출신은 7명(광주·전남 4명)으로 각기 8명으로 집계된 영남 및 서울 출신에 비해 크게 뒤지지 않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광주·전남 출신으로는 강현욱 재무부 국장(행시 21회), 강계두 국고국장(행시 22회), 임종룡 경제정책국장(행시 24), 김광수 공적자금관리위원회 사무국장(행시 27회) 등이 꼽히고 있다.

호남 출신 재경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 영남정권에서 호남 인맥이 경제기획원에 몰렸다면 최근의 호남 인맥은 기획예산처를 선호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국민의 정부 들어서부터 지역 편중적인 인사는 상당 부분 해소됐으며 현재 재무부의 호남 인맥은 타 지역에 비해 그리 밀리지 않는다"고 말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政府, 영남이 주물렀다

〈5共~참여정부〉

'8대 핵심 부처' 수장 161명 가운데 79명…호남 24명 그쳐

제5공화국부터 참여정부까지 정부의 예산, 정책, 사정, 정보기관 등 정부 핵심 부처의 수장은 영남 출신들이 주무른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장, 재정경제부 장관(경제기획원·재무부·재정경제원 포함), 행정자치부 장관, 검찰총장, 국가정보원장, 경찰청장, 국세청장, 기획예산처 장관 등 '정부 8대 핵심 부처'의 수장은 모두 161명에 이른다.

이 가운데 영남 출신은 79명으로 전체의 절반을 차지한 반면 호남 출신은 24명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 11명의 감사원장 가운데 영남 출신은 4명이었고 호남 출신은 3명(이한기, 전윤철, 한승헌)으로 집계됐다.

또한, 재정경제부 장관 및 재정경제부의 전신인 재무부, 경제기획원, 재정경제원 장관 38명 가운데 영남 출신은 10명으로 집계됐으나 호남 출신은 4명(전윤철, 진념, 강봉균, 한덕수)에 불과했다.

반면, 국민의 정부에서 국가 예산을 총괄하는 기구로 출범한 기획예산처 장관 7명 가운데서는 호남이 4명(장승우, 전윤철, 진념, 장병완)인 반면 영남은 3명으로 나타났다.

31명의 행정자치부 장관(내무부·총무처) 가운데 영남 출신은 18명으로 전체의 절반 이상을 차지한 반면 호남 출신은 3명(강운태, 최인기, 이용섭)에 그쳤다.

또한, 20명의 검찰총장 가운데 영남 출신이 15명을 차지, '영남 독식'을 증명한 반면 호남 출신은 2명(신승남, 김종빈)에 불과했다.

18명의 국가정보원장(국가안전기획부장) 가운데 영남 출신은 8명이나 됐지만 호남 출신은 3명(천용택, 신건, 김승규)에 그쳤다.

국세청장도 전체 13명 가운데 영남 출신은 절반에 가까운 7명에 이르렀으나 호남 출신은 3명(안정남, 손학래, 이용섭)에 그쳤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2007 종묘대제 6일 오후 서울 종묘 정전에서 열린 2007 종묘대제에서 종묘대제 봉행위원들이 제례의식을 하고 있다. 종묘제례는 조선 왕조 제왕과 왕비의 신주를 모시고 제사를 지내는 의식으로 조선시대에는 1년에 다섯 차례 지냈지만 지금은 5월 첫번째 일요일에만 봉행한다. /연합뉴스

"생애 제일 어려운 시기…후회스럽다"

김승연회장 '보복폭행' 심경 토로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이 '보복폭행' 사건과 관련, "후회스럽다"는 취지의 심경을 밝히면서 "지금이 생애 제일 어려운 시기"라며 감당하기 힘든 현재의 상황에 대해 언급했다. 김 회장의 이러한 '육성' 언급은 경찰 조사 이후 처음 나온 것이다.

김 회장은 최근 최상순 한화 부회장과 김연배 한화증권 부회장 등을 만난 자리에서 "둘째 아들이 피투성이가 돼 집에 들어왔는데 자초지종을 듣고 격정을 억누르지 못했다"면서 "내가 너무 감정이 북받쳐서 (아들에게) 사과를 받으라고 했다가 결국 일이 잘못돼 이러한 사건으로 비화됐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회장은 또 "29세에 그룹 회장이 된 이래 지금이 제일 어려운 시기인 것 같다"고 말하고 "그러나 지금까지 온갖 어려움을 다 극복해오지 않았느냐"고 반문한 뒤 "임직원 모두 업무에 최선을 다했으면 한다"고 당부했다고 장일형 그룹 홍보팀장이 전했다.

그는 또 부친인 고 김종희 회장에 "큰 죄를 지은 것 같아 밤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외교부 "케냐항공기 탑승 한국인 생사 확인중"

외교통상부는 지난 5일 카메룬 남부에서 실종된 케냐항공 KQ-507 편에 한국인 김모씨가 탑승한 것과 관련, 인근 케냐 대사관 직원 1명을 현지에 급파해 수색현황을 파악하고 있다고 6일 밝혔다.

이와 함께 카메룬 관할 공관인 주나이지리아 대사관은 카메룬 명예영사와 현지 거주 우리 동포에게 실종 국민의 가족을 지원해줄 것을 요청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주케냐 대사관은 사고 수습본부에 직원을 급파해 실종항공기 수색현황을 파악하고 있으며 사고 수습을 위해 케냐 항공사측과 긴밀히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외신들은 승객과 승무원 114명을 태우고 카메룬을 출발, 케냐 나이로비공항으로 향하던 케냐항공 소속 737-800기가 5일 카메룬 남부에 추락했다고 보도했다. /연합뉴스